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 조선업 역사상 첫 노사정 상시 대화협의체 출범, 양대 노총 모두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이하 ‘조선노연’) 등 노동계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 명의 운영·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도 참석해 협의체 출발에 힘을 보탰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로 도약 계기를 맞아 대표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한 우리 조선업이 다시 뛰고 있다.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업 현장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숙련인력은 부족하고, 원하청 간 격차와 호황·불황을 오가는 경기 사이클 속에 반복되는 고용 불안이 청년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5월 13일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 사용자, 협력업체 간의 대화 시스템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정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사는 두 달여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 협의체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모두가 “조선업에 찾아온 호황의 기회를 함께 살리고 키우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뜻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노연에 더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과 주요 조선사가 함께하는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운영협의체에서는 큰 틀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고, 이어진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입직 및 장기근속 지원 ▲노사 협의로 AI를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 그간 타운홀미팅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의 제안을 받아 의제를 더하고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대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작은 과제라도 노사정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입법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라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고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상생호의 닻을 올린 만큼,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협력사까지 골고루 닿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향로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득영 (044-202-7412) 노선영 (044-202-7407)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3-4333)



붙임1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 개요

□ 일시: '26.7.13.(월) 10:30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F 기자회견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자

- (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 (사) 주요 조선사(HD현대중, 삼성중,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정)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세부일정(유튜브 라이브 진행)

※ 전체공개

구분	시간(소요)		주요 내용	비고
발족식	10:30~10:4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40~11:00	'20	개회사, 축사, 인사말씀	내빈
	11:00~11:03	'3	운영계획안 발표	노동부
	11:03~11:08	'5	기념촬영	전체 참석자
이동 등 정리				

※ 발족식 이후 운영협의체 → 실무협의체 순으로 진행 (비공개)

붙임2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원

구분		운영협의체	실무협의체
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이태현 (조선노연 공동의장)
		김유철 (조선노연 공동의장)	김승봉 (HJ중공업 지회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국장)
사			유영남 (한화오션 지회 대외협력실장)
			김성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이상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박성수 (HD현대중공업 상무)
정			황원준 (삼성중공업 상무)
			민병호 (한화오션 책임)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형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공 (추천)	노		김수진 (노동부 노동정책관)
	사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정	이정환 (경사노위 상임위원)	우태현 (경사노위 기획위원)
공 (추천)	노	실무협의체와 동일	안재원 (前 금속노조 연구원장)
	사	실무협의체와 동일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	실무협의체 중 1인	배규식 (前 노동연구원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정흥준 (서울과기대)
			*가나다 순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노동계와 경영계, 조선업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김태선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K-조선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노사정 공동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조선업의 새 역사를 쓰는 뜻깊은 날입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조선업은
허허벌판 위에 세계 1등 신화를 쌓아 올렸지만,
노사정이 마주 앉는 대화 테이블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오랜 공백을 끝냈습니다.
무엇을 논의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침내 마주 앉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는 다가올 백년을 준비할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선업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가 보여주듯
세계가 먼저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황 앞에서 세 가지 질문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호황은 지속가능한 것입니까?
청년과 숙련공들은 조선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호황의 온기는 협력사와 지역 골목까지 닿고 있습니까?

수주 잔량이 도크를 가득 채워도
정작 배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대형 조선소의 활기가 협력업체와 지역으로는
충분히 번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격차, 청년과 숙련공 등 인력 공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 손끝에 정당한 보상과 안전, 지속 가능한 성장,
미래에 대한 확신을 쥐여 드리는 일,
분배나 투자나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 공정한 분배가
숙련공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확실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
기업의 단기이익을 넘어 조선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는 일,
그것이 이 협의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협의체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뜻이 모이는 과제부터 속도를 내겠습니다.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구체화하여
국회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함께 '상생호'의 돛을 올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